

장성 필암서원-중국 악록서원 문화교류 추진

(호남성)

김양수 군수, 10월 중국 방문 협력 방안 논의

한·중 서원간 최초 교류사례 될 지 관심 집중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눈앞에 두고 있는 장성 필암서원과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중국의 대표 서원인 악록서원의 문화교류가 이뤄질 전망이다. 교류가 성사되면 한국 서원이 중국 서원과 교류하는 최초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13일 장성군에 따르면 김양수 군수가 지난 10일 광주 호남대학교 '공자 아카데미'에서 자오위예위 중국 호남대 총장을 만나 필암서원과 악록서원이 상호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동명의 학교인 중국 호남대와

광주 호남대가 함께 설립한 공자아카데미에서 평소에 중국어를 배워왔던 박영덕 장성경찰서장이 필암서원과 악록서원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교류 협력을 제안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이날 만남에서 김양수 군수와 자오위예위 총장은 서원의 활발한 문화교류는 물론, 나아가 군과 중국 호남대 대 총장을 만나 필암서원과 악록서원이 상호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전국 사회교육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한 '21세기 장성아카데미'와 중국 전 지역에 방송되는 호남대 명사 초청 특강인 '논단'이 함께 교류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도 조심스럽게 제시됐다.

특히 중재를 맡은 광주 호남대는 양 기관의 실질적인 교류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선비의 고장 장성에 위치한 필암서원(筆巖書院)은 하서 김인후 선생을 추모하기 위해 선조 23년에 건립된 서원으로 1662년에 사액서원으로 승격되고 고종 때 대원군의 서원 철폐

도 면한 호남의 대표적인 서원이다. 중국의 4대 서원 중 하나로 호남성 호남대 내에 있는 악록서원(麓麓書院)은 천년의 역사를 간직하면서 현재까지 석사와 박사과를 양성해 오고 있는 천년학부(千年學府) 명성을 가진 교육의 산실이다. 김양수 군수는 오는 10월 중국 저장성 이우시에서 열리는 국제소상공박람회에 참가한 후 호남대 악록서원을 방문해 자오위예위 총장과 구체적인 교류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장성=김용희기자 yonghi@



“한글 쉽게 배울 수 있어 좋아요”

화순군 다문화가정에 자국어 번역 가능 언어교재 보급

화순군은 입국초기 언어소통이 자유롭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 50세대에게 언어강습 해소를 통해 한국사회에 조기정착 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언어교재 보급을 최근 보급했다. <사진> 13개 읍·면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를 통해 추천받아 다문화가족에게 보급한 이번 교구재는 베트남, 중국, 캄보디아 3개국 언어로 제작됐으며, 기본교재, 단어장, 인식권, 셋톱박스, 구형 TV, 컴퓨터 모니터로 구성된 언어교육 교구재로, 13개 읍·면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보급했다. 특히 이 교재의 장점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고 학습할 수 있으며, 해당 그림을 선택하면 원하는 자국어로 번역이 가능하고, 한국어를 선택하면 자국어로 번역해 주어 부부 모두에게 유용한 교구재라는 것이다. 아울러 셋톱박스를 TV, 컴퓨터 모니터로 연결하여 학습을 할 수 있는 최신 IT 교구재다. 이번 교구재를 지원받게 된 베트남 출신의 한 이주여성은 “그동안 남편에게도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지 못해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제는 가족이 함께 한글은 물론 베트남어까지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게 되어서 이제 정말 한 가족이라는 것이 실감난다”고 소감을 밝혔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전남도 버섯 연구 전문인력 모집

산림자원연구, 17억 투입 53개 연구과제 수행

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는 13일 “올해 산림과학기술 개발 연구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3년간 4억3000만원의 연구비가 확보됨에 따라 버섯 연구 전문인력을 채용한다”고 밝혔다.

재화 연구에 주력해 안전성 확보 및 면적 조절기능 연구를 수행할 방침이다. 전남산림자원연구소는 올해 정부 출연금 등 국비 9억원을 포함해 17억원의 연구비로 총 53개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전문 연구원 5명을 채용, 시험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류 접수 기간은 오는 19일까지로 서류심사 및 면접을 거쳐 전남산림자원연구소 누리집(http://jfnforest.jeonnam.go.kr)을 통해 21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총 52건의 특허를 출원해 38건의 특허를 등록시켰고 이런 우수 기술의 현장 활용을 위해 산업화 우선과제로 13개 기술을 선정해 16개 업체에 기술이전해 1억원의 기술을 영수한 바 있다.

연구원 응시 자격은 박사과정 재학생 이상 또는 석사 졸업자(졸업 예정자)로 컴퓨터 활용은 물론 실험통계처리 등 산림미생물 연구분야에 우수한 자질을 가진 인재다.

윤병선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장은 “앞으로도 현장 맞춤형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중앙부처 정부 출연금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도내 우수 인재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 소득 신소 계 지원 발굴과 임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진될 산림과학기술 개발 사업은 산림청 연구개발(R&D) 자유 공모에 최종 선정된 연구과제다. 전남산림자원연구소는 이를 통해 국내 최초로 재배법을 개발해 농가에 보급할 예정인 참마늘버섯의 식품 소

장진군이 강진우시장 내에 혈통등록 된 송아지만을 대상으로 하는 혈통우 전자경매시장을 이달 30일 개장한다. 혈통등록우 경매시장 개장을 통해 한우개량을 통한 우량 송아지 확대생산 유도로 관내 축산농가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군은 예상하고 있다.



강진군과 강진원도축협이 올해 초 우수 송아지 생산을 위해 입식한 씨암소 축사 모습.

강진 우량한우 공급...전자경매시장 30일 개장

경매 참가 희망농가는 매달 23일까지 축협에 사전경매신청을 접수해야 하고 축협의 출하 소에 대한 직접 방문 확인을 받아 경매당일 중량확인 후 시장에서 3차까지 경매가 가능하다. 김경국 한우산업팀장은 “경매시장 개장으로 한우개량사업이 탄력을 받아 우량송아지 생산은 물론 가축시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

로 오는 30일까지 2주 동안 6일간(월·화·금) 일정으로 담양문화회관 소공연장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환경대학을 수료한 수강생에게는 수료증 교부와 함께 담양군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위촉된다. 환경대학 수강신청은 담양군 홈페이지(www.damyang.go.kr)와 (사)생태도시담양21협의회와 담양군 녹색환경과로 신청하면 된다. /담양=정재근기자 jjg@

환경대학 수강생 모집

담양군·생태도시21協

담양군과 (사)생태도시담양21협의회가 이달 16일까지 환경에 관심 있는 주민과 환경대학 수료생 중 농수 교육 희망자를 대상으로 제12기 환경대학 수강생을 모집한다. ‘환경대학’은 19일 개강을 시작

전북

순창 전통자수 기능전수사업 추진

군, 전문인력 양성·명품화 등 4억 지원

순창군이 안전행정부로부터 2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군비 포함 모두 4억원에 투입해 향토핵심사업인 시범사업인 순창자수 기능전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 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전문인력과 양성반, 취미반 등 3개 반을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군이 전통자수의 명맥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 5월 서울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열린 ‘제45회 신사임당’의 날 기념 예능전국대회’에서 수강생 6명이 참가해 차상 1명, 장려상 2명 등 총 3명이 입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사업을 통해 군은 순창자수 특화를 위해 맞춤형 인력양성과 명품화를 도모, 사라져가는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지역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설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순창자수를 널리 알리고 브랜드와 포장 디자인 개발을 통한 마케팅에도 전력을 다해 나갈 방침”이라며 “안전행정부 차원의 판로개척사업에 동참하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여 명의 수강생들은 지난해 문을 연 순창자수문화센터 내에 갖춰진 전시실, 교육장, 연구실, 사무실 등을 이용해 기능을 전수받고 있다. 전시실에는 30년 이상된 화려한 작품을 전시해 놓고, 교육장에서는 매

에 담았다. <사진> (사)문화회관은 가족사진 등을 액자로 작업해 각 가정으로 배달해줄 예정이다. /부안=정재용기자 jiy0681@



“어르신 따라해보세요”

농촌의료봉사활동 단체인 ‘생명명의클럽’ 회원들이 13일 남원시 산동면 산동초등학교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봉사단은 내과·안과·한약과·치과 등 다양한 의료봉사로 폭염과 더위로 지친 농촌 어르신에게 특별한 건강관리의 기회를 제공했다. /남원=백성기자 bs8787@

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 산하 농산물 공동선별작업장에서는 여름방학을 맞아 학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들이 농산물 공동선별작업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전체 종사자의 43%를 대학생이 차지하고 있는 춘향골농협 과일선별장에서는 7월 초부터 40명의 대학생이

남원 농산물 공동선별장 대학생 알바 일자리 제공

선별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 대학생들은 안전한 실내작업으로 매달 평균 200만원의 소득이 보장돼 대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아 남원시 조합공동사업법인인 매년 여름방학시기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력을 점진적으로 증원해 나갈 방침이다. /남원=백성기자 bs8787@

전주 지하수 사용자정 원격화상 검침기 설치

전주시맑은물사업소(소장 정태현)에서는 지하수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검침이 어려운 지하수 사용가에 대한 원격화상 검침 시스템을 도입, 체계적인 지하수검침 관리기반을 마련했다. 맑은물사업소에서는 검침곤란·다량수용가에 대한 일제조사 및 고장난 지하수계측기 및 유량계에 대한 조사를 통해 지하수

유량계검침이 어려운 200개소에 원격화상검침기를 설치했다. 지하수 검침시스템 업무개선을 통한 지하수 사용자 부담 완화 및 민원 감소로 지하수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 향상은 물론 공적 자원의 지하수에 대한 시민의식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주·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가족사진 무료로 찍어줍니다”

부안 서외리 향교마을 ‘행복예술관’

부안의 향교마을에 맞춤형 사진관인 ‘행복예술관’이 가족사진을 액자 작업해 가정에 제공하고 있다.



13일 부안군에 따르면 (사)문화회관이 주관하는 문화바우처 기획사업인 ‘행복예술관’이 부안 서외리에 위치한 향교마을에서 진행 중이다. 이 마을에는 지난 10일부터 (사)부안군 생활문화예술진흥회와 부안청소년문화의집이 공동으로 ‘청소년마을공동체 벽화그리기’를 전개하고 있다.

‘행복예술관’은 마을의 주민과 풍경을 기반으로 마을 앨범을 제작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인물사진이나 단체사진을 제작해 전달하는 사업이다. 사진작가들은 향교마을의 30여 세대를 방문해 무료로 가족사진을 촬영했다. 또 청소년들의 벽화작업과정과 곳곳의 아름다운 마을 풍경을 카메라

대학생 자동차 대회 갯벌 생태체험 축제

군산 새만금경주장...차량 직접 제작 주행

고창 심원면 만들학습장...조개 캐기 등 다채

‘2013 대학생 자작 자동차대회’가 14일 전북 군산시 새만금 자동차경주장에서 개막한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자작 자동차대회는 16일까지 전국 83개 대학 144개팀이 참가한 가운데 펼쳐진다. 자작 자동차대회는 대학생들이 이론차 연진(125cc)을 이용해 주행할 수 있는 차량을 직접 제작해 가속과 주행 경기를 통해 우승팀을 가리는 대회다. 김연아 선수의 피겨스케이팅 모습을 차용한 차량, 귀승자 형태의 차량 등 독특한 디자인의 차량도 함께 전시된다.

해양생태자원의 보고로 랍사르습지로 지정된 고창갯벌에서 생태체험축제가 열린다. 고창갯벌체험축제위원회는 17일부터 이틀간 전북 고창군 심원면 만들갯벌체험학습장에서 갯벌체험축제를 연다. 호미로 조개 캐기, 밀물과 썰물을 이용한 전통방식의 고기잡이, 트랙터를 개조한 갯벌버스 탑승, 맨손으로 풍천장어 잡기 등의 생태체험 프로그램들이 마련됐다. 바지락을 재료로 캄구수와 부침개 만들기, 진흙목걸이·팔찌 만들기, 관광객 참여게임, 가수 공연도 진행된다. 축제기간 체험비(1만원)가 50% 할인되며 체험에서 잡은 물고기와 조개류를 가져갈 수 있다.

총 3140만원의 상금과 2000만원 상당의 경품이 걸렸으며 종합우승팀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원, 우승기, 우승컵이 주어진다. 자동차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무료 관람이 가능하다. /전주·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고창갯벌은 자연생태계 보존가치를 인정받아 2010년 2월 랍사르습지로 지정됐으며, 고창군 전체가 올해 5월 청정지역을 상징하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이 됐다. /고창=윤정영기자 cy0370@

정읍 취약계층 아동 790명 맞춤형 건강검진

정읍시보건소가 저소득,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아동들의 방과후 공부방 역할을 하고 있는 정읍지역아동센터협의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아동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에 나서 호응을 얻고 있다. 보건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달부터 9월까지 2개월 동안 31개소

아동 790명 아동들에게 건강검진 및 보건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보건소는 간وص사, 치위생사, 사회복지사 등이 각 5명씩 3팀으로 방문팀을 구성했고, 읍면동지역을 순회하며 비만도 및 체성분 검사, 혈압 등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펼치고 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전북도 16일부터 ‘지역사회건강조사’

전북도는 13일 “지역주민의 건강상태와 생활 습관, 삶의 질 등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오는 16일부터 10월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자는 시·군별로 19세 이상 900명씩 총 1만2418명이다.

이번 조사자료는 주민의 건강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평가, 건강정책수립 등을 파악하는 것으로 건강증진을 위한 연구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조사결과는 내년도 4월 지역사회건강 통계집을 통해 공개한다. /전주·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